

인지언어학과 근대한어 어법 연구방법

朴元基*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근대한어 어법 연구방법과 인지문법 적용의 필요성
3. 인지문법의 소개
4. 인지문법을 이용한 근대한어 언어 현상 분석의 예
 - 1) 복합방향보어 ‘~起來’와 ‘~起去’의 비대칭 현상 분석
 - 2) ‘개념성분 실현 원칙’과 근대한어 VOC구조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근대한어는 기술, 묘사 위주의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언어 연구의 최종목적이 언어현상의 해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근대한어 연구에 있어 방법론상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기본적으로 공시선상에서의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심화시키는 통시선상에서의 해석에까지 이르게끔 하는 연구방법론의 채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해석 방법론의 대표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인지문법을 소개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근대한어 현상에 시험적으로 적용하여 근대한어 연구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근대한어 어법 연구방법과 인지문법 적용의 필요성

근대한어 어법 연구의 범위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넓게 분포한다. 그것은 東漢시기부터 初唐에 이르는 소위 中古한어를 포함하여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그 범위는 대략 東漢 무렵부터 清末에 이르는 1,700년에 가까운 엄청난 시간의 한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특히 東漢 혹은 魏晉시기로 가면 서 한어에 큰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 시기부터 현대한어와 유사한 어법 특징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나간 시간 동안의 古漢語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방법 또한 현대한어와는 차별화된 면이 있다. 그 연구 방법으로 각 문헌 및 朝代가 대표하는 하나의 시기를 공시적 대상으로 놓고 연구하는 방법도 있고, 각 시기의 언어 현상을 모두 고찰하여 그것의 통시적인 변화현상을 관찰하는 연구 방법도 있다. 즉, 공시적 분석과 통시적 분석 두 가지 모두 근대한어 연구에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비록 현대한어 연구와는 달리 근대한어 연구의 대상이 死語인지라 그 방법론에 모종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시적인 변화의 기술과 그 원인 분석으로 귀결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근대한어 어법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아래의 두 영역으로 나뉘볼 수 있다.

- ① 공시적인 연구 : 공시적인 기술, 묘사
- ② 통시적인 연구 : 역사적 변화 기술, 묘사 및 해석¹⁾

위와 같이 현재까지의 근대한어 연구는 각 朝代를 반영하는 주요 語料(백화문

1) 吳福祥은 『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의 ‘從一般歷史句法學看漢語歷史語法研究的現狀’에서 근대한어 어법 연구를 크게 아래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① 專書語法研究 ② 斷代語法研究 ③ 語法史專題研究

그는 이 세 가지 중 ①과 ②는 靜態의 묘사에 치중하는 ‘共時語法狀態의 描寫’라 칭하고 있고, ③을 動態의 연구를 진행하는 ‘歷時語法演變의 研究’라 칭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의 견해에 따라 근대한어 연구의 방법을 크게 공시연구와 통시연구로 나누었다.

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專書 연구 및 이를 기반으로 각 시기의 언어현상을 연구하는 공시적 연구와 어떤 한 專題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역사적 변천문제를 다루는 통시적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전형적인 공시연구의 형태로서 일차적으로 하나의 문헌에 존재하는 문법규칙과 문법성분에 대해 階次的으로 定量的 분석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귀납과 통계는 한 시기 언어 현상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되거나 통시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후자는 어느 한 시기에 묶여있지 않고 근대한어 전 시기에 걸쳐 하나의 문제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그 변화양상을 관찰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들 가운데 후자는 묘사와 해석을 아울러 진행해오고 있지만 전자의 경우는 주로 묘사에 치중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편, 언어의 역사적 연구 방면에서 ‘문법화(Grammaticalization)’이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통시선상의 해석이론이 등장하여 현재까지 활약하고 있다. 대륙에서도 2000년대를 좌우한 시기에 근대한어 연구에 도입되어 기존의 8, 90년대에 이루어 놓았던 묘사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시적 변화현상을 묘사함과 아울러 한어 문법화과정의 근본 원인과 機制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중국에서의 문법화 연구는 주로 어떤 한 문법소(즉, 虛詞)가 탄생하는 과정에 치중하여 연구하고 있어 아직 화용구조의 통사구조로의 문법화 등과 같은 보다 전면적인 문법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상술한 근대한어 어법 연구의 두 영역 중 특히 공시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묘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왔다. 그리하여 한 문헌 또는 한 시기 문법 특징을 몽땅 귀납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근대한어 공시 연구에서도 충분히 해석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斷代연구상의 해석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통시적 해석에 대한 튼튼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바로 인지문법 등의 현대어법연구의 해석적 연구방법론이 필요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 문법화 연구의 심화문제도 인지문법 연구와 관련성이 높다. 앞에서 언급한 문법화이론은 비록 자체적인 기원과 발전의 과정이 있지만 현재 문법화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인지문법의 이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여기서 우리는 인지문법의

통시·공시선상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보다 정확한 한어의 문법화 연구를 진행하고, 근대한어 한 시기의 공시적인 해석과 여러 시기에 걸친 통시적인 해석을 위해서 인지문법 이론을 근대한어 어법 연구에 적용시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인지문법의 소개

1960년대 생성문법이 학계에 등장하면서 언어학계는 큰 변혁이 일어났다. 생성문법은 인간이 생득적으로 언어능력을 타고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모종의 변형규칙을 통해 심층의 형식이 다양한 표층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으로 상당히 연역적인 이론이다. 그러나 생성문법은 딱딱 떨어지는 깔끔한 규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언어현상 전반의 체문체를 다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비유적이거나 은유적인 언어현상 및 어휘, 관용어 등에 대해서는 예외나 비언어학적 현상 등으로 치부하기에 급급했고 소위 ‘위생 처리된 언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그런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리고 생성문법에서는 규칙 아니면 목록이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언어 현상을 바라보았고, 형태가 다르면서도 그 의미는 같을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여 실제 언어 현상의 복잡한 국면을 외면해 왔다. 뿐만 아니라 언어능력과 일반 인지능력을 완전 별개로 설정하여 자립적인 통사론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 언어현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여 생성문법에서 말하는 그런 연역적인 규칙으로는 다 설명해내기가 힘들어 언어학자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언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문법’이라는 것의 존재성에 대해 서서히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성과 그 극복을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이다. 1976년부터 Langacker에 의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 이론은(처음엔 ‘공간문법(Space Grammar)’란 이름으로 등장함)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언어 연구의 중요 방법론으로 운용되어 왔다.

인지문법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인간의 언어능력이 일반적인 인지능력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로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생득적인 언어능력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일반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언어가 이분법적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단계적이며 연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음운, 형태, 통사, 의미 제방면이 연속변차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이로써 통사가 따로 독립적이라는 생성문법의 자립통사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어떤 언어 단위이든 언어 자질들의 단순한 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Gestalt)고 보고 언어 현상을 기본적으로 은유적 현상으로 본다. 그리하여 생성문법에서 외면했던 은유적 표현이나 관용어, 어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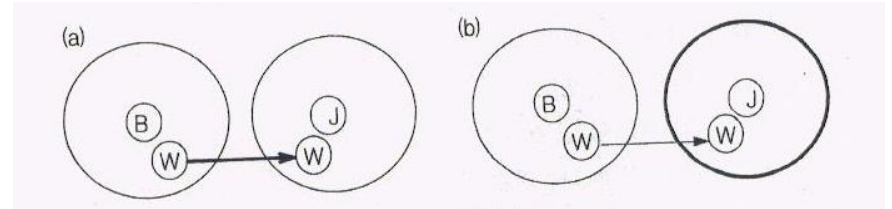
이러한 인지문법은 문법을 ‘관습적 언어 단위들의 구조지어진 목록’으로 정의한다.²⁾ 여기서 ‘구조지어졌다’는 것은 ‘목록 간에 계층적 질서가 있다’는 의미이고, ‘목록’이란 것은 ‘규칙과 목록을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위’라는 것은 ‘우리 심리 속에 미리 조립되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쓸 때마다 부분을 결합시키는 구성 노력을 들일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꺼내어 쓸 수 있는 미리 꾸러져 있는 하나의 구조’를 말한다. 그 다음 ‘관습적’이라 함은 곧 ‘개인만의 것이 아닌 언중의 공유물임’을 말한다. 아울러 그들이 보는 언어활동이란 ‘관습적인 단위를 꺼내어 쓰거나 이 단위들을 다시 본에 맞게 조립해서 더 큰 구조를 만들어 쓰는 행위’를 가리킨다.

인지문법에서는 사람이 객관세계를 관찰하고 그 관찰한 개념적 내용이 영상으로 구성되어 구체적인 언어로 발화된다고 본다. 이 때 영상은 개념적 내용에 대한 해석으로, 특히 객관세계의 현상 중 개념화자에게 인지적으로 부각된 것이 있으면 실제 언어의 구조도 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1) a) Bill sent a walrus to Joyce. (빌이 조이스에게 해마를 보냈다.)

b) Bill sent Joyce a walrus.

이 두 문장에서 문장 a)와 b)가 사실상 동일한 개념적 내용을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 발화된 문장이 다른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은 그것의 영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영상은 인지적으로 부각된 면이 다르기 때문인데, a)는 ‘to’에 의해 경로가 부각되어 있고, b)는 ‘Joyce’와 ‘walrus’ 두 사물이 병치되어 있어 소유관계가 부각되어 있는 것이다. a)와 b)의 영상은 각각 아래와 같이 다른데, 여기서 a)는 그 경로가 부각되기 때문에 이를 나타내는 선이 굵게 표시되어 있고, b)는 병치되어 있는 관계가 부각되어 있어 둘이 함께 있는 공간이 굵게 표시되어 있다.



이처럼 인지문법은 모든 발화는 객관세계에 대한 개념화자의 다양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문법구조가 다르면 다른 영상을 나타낸다고 본다.

인지문법은 이와 같이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어서, 형태적 특징이 단순한 한어의 분석에 있어 형식적인 면을 강조하는 생성문법 보다 비교적 적합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2) 김종도(2002 : 27쪽).

4. 인지문법을 이용한 근대한어 언어 현상 분석의 예

1) 복합방향보어 ‘~起來’와 ‘~起去’의 비대칭 현상 분석

현대보통화에서 복합방향보어로 ‘~起來’는 사용되지만 ‘~起去’는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근대한어 시기부터 그 단초를 보이고 있다. 다만 근대한어는 현대한어와는 약간 달라 일부 문헌에서 복합방향보어로 ‘~起來’ 외에도 ‘~起去’가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한 연구가 일부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邢福義(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西遊記』에 등장한 25예의 ‘~起去’가 쓰인 예문을 찾아내는 등의 성과를 보였으나 그 역시 이러한 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했고, 방언 내지는 예외적 현상 정도로 설명하였다. 근대한어의 큰 줄기는 현대한어와 유사하지만 각종의 세부적인 면에서 현대한어와 약간씩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起來’와 ‘~起去’ 문제는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것이다. 우리는 단순한 언어 현상의 기술 이외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아래에서 宋文輝(2007)가 분석한 현대한어 현상의 분석내용을 보면서 근대한어 현상의 인지문법적인 해결의 한 예를 살펴보자.

먼저 ‘~起來’, ‘~起去’와 관련하여 현대한어의 예를 살펴보자.

(2) a) 氣球飛起來了。(풍선이 날아올랐다.)

b) *氣球飛起去了.

현대한어에서 ‘~起來’와 ‘~起去’가 쓰인 대표적인 위의 예문의 개념구조는 아래와 같이 묘사할 수 있다.

(3) a) [氣球 MOVE [UPTO]TOWARD HERE]主事件 + [氣球飛]副事件 3)

b) *[氣球 MOVE [UPTO某處]AWAY FROM HERE]主事件 + [氣球飛]副事件

먼저 ‘飛起來’의 상황을 보면 이것 역시 그다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起來’의 개념구조에서 ‘來’의 배경은 말하는 이의 방향 즉, ‘HERE’로서 말하는 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실제 문장에서 말하는 이는 땅위에 있고 기구는 날아서 올라가는 것이라 뭔가 모순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기대하는 지점을 현재 자신의 立足點과 일치시키려는 주관적인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걸 때 ‘等一會兒, 我就過去’로 할 수도 있고, ‘等一會兒, 我就過來’로 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가 바로 위와 같은 경우의 한 예로 여기서도 화자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일종의 주관적인 立足點으로 인식하여 말하고 있다. 이런 현상의 은유적 확장이 곧 ‘~起來’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자신이 기대하는 ‘높은 어느 지점’을 자신의 立足點으로 삼아 그 ‘高處’로 ‘來’하는 상황으로 말하게 된다. 이렇게 ‘~起來’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起去’가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특히 다음의 이유도 있다. ‘來’는 화자 방향으로 오는 것이어서 돌출체의 현저도가 점차 높아져 화자에게 일종의 ‘정방향’으로 인식되나 ‘去’는 화자 쪽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라 돌출체의 현저도가 낮아져 ‘역방향’으로 인식되고 상대적으로 유표지적이다. 유표지적이라 함은 곧 사용에 있어 제한적 요소가 많다는 것인데(즉, 특별한 상황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去’보다는 ‘來’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3) 동결식 또는 동추식 등의 동보구조의 개념구조는 ‘主事件’과 ‘副事件’으로 구성된다. 그중 주사건의 내부는 ‘돌출체(figure), 배경(ground), 운동(motion), 경로(path)’의 4가지 개념성분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我走進了屋子.’는 아래와 같은 개념구조로 분석된다. [我 MOVE 進 屋子] 主事件 + 方式 [我 走] 副事件 여기서 ‘我’는 ‘돌출체’로 운동물체를 나타내고, ‘MOVE’는 ‘운동’을 나타낸다(특히, 이것은 자신이 움직이는 ‘自動事件’을 나타내고, 使事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엔 ‘使動事件’으로 ‘AMOVE’로 표시된다). ‘進’은 ‘경로’로 돌출체가 배경에 상대하여 나타난 경로를 나타내며, ‘屋子’는 ‘배경’으로 참조물체를 가리킨다. 主事件은 사건을 구성하는 기본 틀이 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로와 배경은 사건의 시간/공간 위치를 결정한다. 副事件은 主事件만큼 현저하지 못하고 그것의 주요 기능은 方式(manner)과 使因(cause)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구조 분석은 Talmy(2000)의 이론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 다음 '起去'가 쓰이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위의 개념구조에서 'UPTO'가 나타내는 것은 내층(저층)의 경로⁴⁾로서 그 자체도 현저도가 낮고, 그것의 배경은 일반적으로 현저성이 부여되지 않아 원칙상 보다 현저도가 있는 'HERE'와 합병되어 실현된다. 그래서 배경은 'HERE'가 되는데 다만 이것은 내층의 경로보다는 현저하지만 예측 가능한 것이라 기타 성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성이 낮아 실제 문장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방향보어 '起' 자체는 종결점이 없는 것으로 개념구조 자체에 독자적인 배경을 가질 수 없어 배경은 단지 '來'만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b)의 '~起去'처럼 '去'를 쓰게 되면 종결점을 배경으로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起'의 성질과 충돌이 발생하고, 게다가 그 배경으로 생성된 '某處'라는 종결점은 특히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의 현저도가 비교적 높다. 이러한 상황은 'UPTO'가 갖고 있는 위의 성질(내층 경로)과 모순이 되고 또 '起' 자체의 성질과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起去'는 부자연스러운 것이 된다.⁵⁾

宋文輝의 위의 설명을 통해 현대한어에서 '~起去'가 쓰이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한어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水滸傳』에서 '~起來'와 '~起去'가 쓰이는 예문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그중 '~起來'는 총 208회 출현하고 '~起去'는 총 6회 출현한다. 아래는 '~起去'가 쓰인 대표적인 예이다.

(4) 只聽得祝家莊裏一個號炮，直飛起半天裏去。(47回) (축가장 쪽에서 포 소리가 하나 나더니 공중으로 날아 올라갔다.)

(5) 那塵尾在空中打個滾，化成鴻雁般一只鳥飛起去。(96回) (그 털이개는 공중에서

4) 저층(내층)경로는 일종의 층차분석상의 개념이다. 먼저 '동사+起來'의 개념구조는 [(UPTO) TOWARD HERE]가 된다. 이 구조의 층차분석을 해 보면 'UPTO'가 내층이고, 'TOWARD HERE'는 외층이다. 이러한 내층의 개념성분은 그 자체가 현저하지 못해 외층의 'TOWARD HERE'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실현된다.

5) 이에 비해 '上去'는 약간 다르다. 먼저 '上去'의 개념구조는 [(ONTO)AWAY FROM HERE]로 여기서의 '上'은 '去'에 비해 내층경로로 현저성이 낮아 '起去'와 동일한 상황이 된다. 그러나 '去'와 결합되어 문장에 출현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上'자체가 'ONTO'의 의미로 종결점이 내포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 번 구르더니 기러기 모양의 새 한 마리가 되어 날아갔다.)

우리는 이러한 출현횟수 자체를 통해서 근대한어 시기 이미 '~起來'/'~起去'간의 비대칭 현상이 확연히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주로 '~起來'를 사용한 이유는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인지상의 이유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여기서 근대한어 시기에 쓰인 '起去'의 문법화 정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당시 '起來'는 확실히 하나의 복합방향보어로 문법화하여 여기서의 '來'가 단순한 입축점만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起去'에서는 아직 문법화가 덜 되어 '去'는 '실제 운동'을 나타내고 있다.⁶⁾ 위의 예문들에서 '起去'는 모두 실제의 운동과정을 묘사하고 있어 '포탄이 하늘의 어느 곳으로 날아올라 가고 있는 것', '새로 변해 공중의 어느 지점으로 날아올라 가는 것'을 묘사한다. 이렇게 점차 '起去'도 문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으나 위에서 언급한 인지상의 원인에 의해 제한을 받아 문법화가 완성되지 못한 채 도태하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이미 출현 초기부터 '~起來'에 비해 극히 적은 예만 사용되고 있었고 급기야 현대한어 보통화에서는 소멸되었다. 『水滸傳』에서 '~起去'가 일부 소수만 출현하고 있는 현상은 한편으로 당시 화자들의 인지적 경향이 현대인과 유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개념성분 실현 원칙'과 근대한어 VOC구조

宋文輝(2007)에 따르면, 개념구조와 통사구조의 대응관계는 현저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즉, 개념구조 내의 개념성분이 통사성분으로 실현될 때, 현저도가 높은 성분은 독립적인 성분으로 실현되거나 다른 성분과 분리되어 실현되고, 낮은 것은 다른 개념성분과 합병되어 독립성을 잃거나 출현하더라도 다른 통사성분과 결합하여 출현한다. 이것이 일명 '개념성분 실현 원칙'이다. 예를 들어, '爬上去'와 '爬了上去'의 경우, 우리가 보기에 의미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들 사이에 미묘한

6) 이러한 문법화 정도의 차이 역시 宋文輝(2007: 117쪽)의 견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爬’는 부사건 내의 일종의 운동방식으로 이것은 주사건의 ‘MOVE’와 함께 합병되어 실현되고 있으며 ‘上去’는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MOVE’의 현저도가 높고 ‘上去’의 현저도가 낮으면 ‘上去’가 ‘爬’에 결합하여 합병형이 되고, 경로인 ‘上去’의 현저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그 사이에 ‘了’가 들어가 분리형이 된다.⁷⁾ 즉, 합병형은 두 성분이 결합되어 화자에게 있어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분리형은 두 성분이 분리되어 두 개의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현저도에 따른 개념구조 내 개념성분의 통사구조로의 실현과정’은 인지 문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陳忠(2006: 256쪽)은 소위 ‘距離象似原則(거리도상원칙)⁸⁾’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합병형과 분리형 두 구조 가운데 있는 동사와 보충성분 사이의 분포거리는 서로 다른 영상에 대응’하는데 동사와 보충성분이 합병되어 나타나면 과정보다는 그 결과가 부각되고, 분리되어 나타나면 과정이 부각된다고 한다.

陳忠은 이러한 원칙을 ‘~起來’에 적용하여 ‘拿起來一本書’와 ‘拿起一本書來’의 미묘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起來’는 ‘시작/중간과정/종결결과’의 세 부분의 위치이동을 나타낼 수 있다. 그 중 전자와 같은 합병형은 종결결과가 부각되는 것이고, 후자와 같은 분리형은 시작과 중간과정이 부각되는 형식이다. 이것은 ‘~起來’가 시간 개념을 나타낼 때에도 적용되는데 그때는 단지 시작과 진행의 의미만이 부각되어 분리형만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下起雨來’만이 가능하고 ‘*下起來雨’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량성분은 종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종결이 부각되는 합병형은 반드시 수량성분이 있는 빈어를 취하고 수량성분이 없는 빈어를 취하지 못해 ‘*拿起來書’같은 문장은 성립되지 못한다.

陳忠의 이러한 원리는 근대한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 현대한어와 마찬가지로 근대한어 시기에도 다량의 분리형 동보구조가 존재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動趨式에 나타나는 것으로 ‘取出書來’ 등의 복합방향보어 외에 ‘過山來’ 등의 간단방향보어에

도 나타난다. 陳忠에 따르면 이들 분리형들도 결과보다는 과정이 부각되어 파악된 화자의 영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근대한어 시기의 動結式에서는 합병형과 분리형이 공존했었다. 현대한어에는 합병형만이 존재하고 있으나 魏晉 시기부터 元明에 이르는 각종의 근대한어 자료에서 분리형 동결식을 발견할 수 있다. 『水滸傳』에서도 약 20여 정도 발견되고 있다.

(6) 次日清早, 王婆收拾房裏乾淨了, 買了些線索, 安排了些茶水, 在家裏等候。(24回)
(다음날 아침, 왕할멈은 방안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바느질감을 사오고 차를 준비하여 집에서 기다렸다.)

(7) 楊志道: ‘這廝卻不是晦氣! 倒來尋酒家.’ 立脚住了不走。(17回) (양지가 ‘이 놈 재수 없는 놈 같으니! 도리어 나를 찾아와!’라고 말하고 발을 멈추고 가지 않았다.)

이 형식은 소위 ‘隔開式’ 동보구조라 불리며 이미 동보구조가 막 탄생하기 시작할 무렵인 魏晉南北朝시기부터 존재해왔다. 이러한 분리형 동결식은 洪波(2003) 등에 따르면 元明시기 무렵까지 소수의 예가 존재하다가 결국 소멸했다고 한다.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왜 이러한 분리형의 동결식이 존재했다가 사라졌는가 하는 문제이다. 분리형이 일종의 원시적 형태로서 합병형인 ‘VC’구조의 전신으로 존재했다가 이후 합병형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미 동결식 탄생초기부터 합병형은 존재했었다. 그렇다면 합병형이 존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리형이 함께 존재한 이유는 역시 당시 화자들의 객관세계를 인식하여 발화하는 과정에 나타난 인지적 처리과정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동결식은 발생초기 상태였고 아직 정확히 그 화용적인 기능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결과와 과정을 모두 나타내는데 쓰였다. 즉, 어느 면이 현저성을 받는가에 따라 실제 문장으로 실현될 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인데, 결과측면이 부각되면 동사와 보어가 결합하여 합병형으로 실현되고 과정이 부각되면 동사와 보어가 떨어져 분리형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그 후 明代까지 겨우 이어져 오다가 끝내 이 형식은 소멸되었는데, 이것은 동결식의 기능이 완전히 ‘결과’로서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대한어에서 동결식은 그 목적에 맞는 합병형만이 채택되어 쓰이게 되

7) 宋文輝(2007: 56~57쪽).

8) ‘距離象似原則(거리도상원칙)’은 ‘언어 성분 간의 거리는 그들이 표현하는 개념 성분 간의 거리에 도상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있고, 분리형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다만, 이동과정이 부각되는 방향보어에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 모종의 상보적인 분포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5. 나오는 말

역사 언어학의 연구는 현대 언어의 연구와는 달리 궁극적으로 통시적인 규칙을 찾고 그것을 해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모든 연구는 이것으로 귀결되며 그 과정에서 적용되는 방법론 또한 이러한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언어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이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현대 언어학 이론의 대표적인 방법론인 인지문법을 소개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근대한어 분석에 적용시켜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존의 귀납과 묘사 일색이던 연구방법보다는 근대한어 현상의 궁극적인 측면을 보다 더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필자는 이러한 분석방법이 앞으로 근대한어 연구의 주요한 방법론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明]施耐庵·羅貫中 著, 『水滸全傳』, 鄭振鐸 校勘, 人民文學出版社, 1954.
 陳 忠, 『認知語言學研究』, 山東教育出版社, 2006.
 洪 波, 『使動形態的消亡與動結式的語法化』, 『語法化與語法研究(一)』, 商務印書館, 2003.
 蔣紹愚, 『魏晉南北朝的“述賓補”式述補結構』, 『國學研究』 第12輯, 2003.
 蔣紹愚, 曹廣順 主編, 『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 商務印書館, 2005.
 李 訥·石毓智, 『漢語語法化的歷程』, 北京大學出版社, 2001.
 劉月華等, 『實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2003.
 朴元基, 『水滸傳 述補結構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宋文輝, 『現代漢語動結式的認知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07.
 王 寅, 『認知語法概論』,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6.
 邢福義, 『『西遊記』中的“起去”與相關問題思辨』, 『古漢語研究』 第3期, 2005.
 俞光中, 植田均, 『近代漢語語法研究』, 學林出版社, 2000.
 김중도, 『인지문법의 디딤돌』, 박이정, 2002.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2000.
 이수련, 『한국어와 인지』, 박이정, 2001.
 Langacker, Ronald W. 1987/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1/2 : Stanford University Press. (김중도 역(1999), 박이정)
 Talmy, L. 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1/2 : The MIT Press.

< 中文提要 >

近代漢語的主要研究方法有兩種：共時上的研究和歷史上的研究，其中，前者的研究方法主要限於描寫和歸納，而後者還有解釋。一般來講，語法研究的最終目標就是解釋語言現象，所以，近代漢語共時上的研究也可以用‘解釋’方法來進行它的研究。我們認為現代語法解釋理論當中所謂‘認知語法’是適合於漢語分析的非常適當的理論，如果把它適用於近代漢語的研究，能夠進行比較深入的語法研究，能夠解釋出漢語語法史當中的各種問題。

關鍵詞：近代漢語，認知語法，研究方法，概念結構，概念凸顯原則，凸顯性，語法化

원고접수일	2008. 1. 30
심사일정	2008. 2. 20
1차수정	2008. 2. 28
게재확정	2008. 3. 7
출간	2008. 3. 30